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12월 16일(수)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(044-203-5750), 민한빛 사무관(044-203-5754)
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석우(02-2100-7675), 홍민의 외무행정관(02-2100-7704)

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12.20(일) 발효 예정

-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, 한국의 제3위 수출·투자상대국 진출 활성화 -

【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12.20(일) 발효】

□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**한-베트남 FTA**를 **'15.12.20(일) 발효**키로 합의함

○ 한-베트남 FTA는 '12.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'14.12월에 실질 타결되고, '15.5.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, 지난 11월 30일 한-중국 FTA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되었음

○ **우리측**은 지난 **12월 9일** 한-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**외교공한**을 베트남측에 **전달**하였으며,

- 이에 **베트남**은 12월 16일에 駐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**외교공한**을 **전달**하여, **한-베 FTA**의 **12월 20일 발효를 공식 확정**함*

* 한·베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(제17.8조)

○ 양측은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, 투자·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, **각국 국내절차**를 이례적으로 **신속하게 완료**하여 **12.20일 발효**가 가능해짐

* 한-베트남 FTA, 한-중국 FTA, 한-뉴질랜드 FTA 모두 12월 20일 발효

【한-베트남 FTA의 기대효과】

□ 이번 협정은 **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**로서 한-아세안 FTA*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였으며,

* 한-아세안 FTA('07.6월 발효) : 베트남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이 참여한 FTA

○ 특히, **한국의 경우** 우리기업의 수출증가 효과, **베트남**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**모범적인 상생형 FTA**가 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정부는 **제3위 수출상대국***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**유리한 가격경쟁력**을 확보하고, 베트남에 대한 **안정적 투자환경**이 **조성**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

* 對베트남 수출은 해외 생산비중 증가로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지속되어, 중국(홍콩 포함), 미국 다음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('15.11월, 152억불 흑자)

** 對베트남수출 : '13년 210.9억불 → '14년 223.5억불 → '15년(1~10월) 233.9억불

○ **(상품)** 한-베 FTA를 통해 **섬유·직물·자동차부품** 등 우리기업의 **중간재수출** 뿐만 아니라, 최근 진출이 활발한 **가전·화장품**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**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**가 예상됨(참고5)

○ 특히, 한-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.1일, **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**되어 우리기업의 **對베트남 수출**에 큰 도움이 될 것임

- 예를 들면, 현행 관세율이 25%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'16년 한-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'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,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'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

< 예시 : 믹서 양허철폐 비교 >

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
'15년 발효시	'15년 관세20%	'16년 관세15%	'17년 관세10%	'18년 관세5%	'19년 관세철폐
'16년 발효시	'16년 관세20%	'17년 관세15%	'18년 관세10%	'19년 관세5%	'20년 관세철폐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○ 또한, 우리기업의 **관심품목 위주**로 베트남 **상품시장 개방**을 추진하여 **실질적 시장진출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됨

< 참고 : 주요 품목 양허 현황 >

주요 품목(관세율)	양허유형
세탁기(25%), 냉장고(25%), 에어컨(30%), 전기밥솥(20%)	10년 철폐
믹서(25%)	5년 철폐
화장품(10~25%)	10년 철폐
자동차부품(7~25%)	5~15년내 철폐
차량용 엔진(5~25%)	3~7년 철폐
화물차(5톤~20톤, 30%) 및 승용차(3,000cc 초과, 68%) 일부 품목	10년 철폐
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, 면직물 등 섬유제품(12%)	3~10년 철폐
아연도강판(5%), 동조가공품(5~10%), 철강제가공품(10%)	7~10년 철폐

○ **(투자)** 미국, 중국(홍콩 포함)에 이어 **한국의 제3위 투자상대국***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현지 **투자자 보호가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됨(참고7)

* 한국의 투자순위('14년 누계(신고)기준, 수은) : ①(미국) 24,267건, 795억불, ②(중국) 50,209건, 655억불, ③(홍콩) 4,910건, 197억불 **④(베트남) 9,111건, 189억불**

○ 특히, 송금 보장, 수용시 정당한 보상, 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절차(ISD) 개선 등 기존 한-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**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**을 통해 안정적 對베트남 투자환경을 조성*함(참고3)

* 한국은 베트남 최대·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,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

○ **(서비스)** 한-ASEAN FTA 대비 **건설, 도시계획·조경, 기타기계·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**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함(참고3)

【향후 추진계획】

□ 정부는 핵심개혁과제인 'FTA의 전략적 활용' 관련 성공적인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한-베 FTA 발효 이후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**장관급 공동위원회**(Joint Committee) 및 분야별 위원회·작업반 등을 통해 베트남측과 **지속 협의**해나갈 계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(☎ 044-203-57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한-베트남 FTA 주요 협상경과

구분		주요 협상 내용
1차	'12.9.3~4 (서울)	▪ 협상운영세칙(TOR : Terms of Reference) 채택
2차	'13.5.22~24 (베트남 하노이)	▪ 우리측의 Text(상품, 원산지, 서비스, 투자 등 13개 분야)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
※ VIP 방베 계기 한·베트남 정상회담(13.9월)에서 "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" 추진 합의		
3차	'13.10.16~18 (부산)	▪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▪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(지재권, SPS, 전자상거래, 경쟁)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
4차	'14.3.12~14 (베트남 호치민)	▪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,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
5차	'14.5.20~23 (서울)	▪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,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
6차	'14.7.28~8.1 (베트남 호치민)	▪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,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개시
7차	'14.9.29~10.2 (서울)	▪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, 협정문상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▪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, 지재권, 경쟁, 전자상거래,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
※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·베트남 정상회담(14.10월)시 "한-베 FTA 연내 타결" 목표 재확인		
8차	'14.11.17~21 (베트남 다낭)	▪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,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▪ 원산지, 통관,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
9차	'14.12.8~10 (서울)	▪ 상품 양허, 서비스·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타결
※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·베 정상회담(14.12.10일)에서 "한-베 FTA 실질타결 선언"		
	'15.1월~3월	▪ 기술협의, 법률검토
※ 한-베트남 FTA 가서명 (15.3.28, 서울)		
※ 한-베트남 FTA 정식서명 (15.5.5, 하노이)		
※ 한-베트남 FTA 국회비준 (15.11.30)		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참고2 한-베트남 FTA 주요내용

□ **(상품)** 한-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, **한국 94.7%(+3%p) - 베트남 92.4%(+6.1%p)** 자유화 수준에 합의

○ (한국) 품목수로는 499개를 추가개방 하였고, 마늘, 생강 등은 그 중 민감하지 않은 건조/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, 쌀은 협정 제외

○ (베트남) 품목수 272개로 자동차부품, 화장품, 생활가전(냉장고, 세탁기, 전기밥솥) 및 승용차(3천cc 이상), 화물차(5톤-20톤) 일부 등을 개방

<한 · 베트남의 자유화율('12년 수입액 기준)>

	한아세안 FTA	한베 FTA						총 개방률
			즉시	5년내	10년내	10년이상	총	
한국	91.7%	추가개방률	1.3%	2.2%	3.0%	0.0% (0.004%)	3%	94.7%
		총개방률	93.0%	94.0%	94.7%	94.7%		
베트남	86.3%	추가개방률	1.2%	3.2%	6.0%	0.1%	6.1%	92.4%
		총개방률	87.5%	89.5%	92.3%	92.4%		

* 금번 한-베트남 FTA에서 추가 자유화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상 양허 약속이 그대로 유지·적용

□ **(서비스·투자)** 서비스(금융, 통신,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)는 positive, 투자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범에 합의

○ **(서비스)** negative 방식의 재협상 약속, 한-아세안 FTA(+)로 건설, 도시계획 · 조경, 기타기계 · 장비임대 서비스 분야 양허 개선

○ **(투자)** 한-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-베 양자투자보장협정(BIT)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

□ **(규범 등)** 한-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 등을 개선하고, 전자상거래, 지재권 등을 추가하여 폭넓은 무역 · 투자 자유화의 토대를 마련

○ **(원산지)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** 등 수출자 · 생산자의 편의 도모

○ **(전자상거래)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**하여, 전자서명, 종이없는 무역,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

○ **(지재권)** 저작권, 상표권,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

참고3 한-베트남 FTA 세부내용

1 개 요

□ 한-베트남 FTA 협정문은 **서문 및 총 17개 챕터(부속서 포함)**로 구성

구분	챕터 명
상품관련	① 상품, ② 원산지(PSR 포함),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, ④ 무역구제, ⑤ SPS(위생 · 검역), ⑥ TBT(기술장벽)
서비스·투자	⑦ 서비스 (금융, 통신,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), ⑧ 투자
규범·협력	⑨ 지재권, ⑩ 경쟁, ⑪ 투명성, ⑫ 전자상거래*, ⑬ 경제협력
총칙	⑭ 일반조항, ⑮ 예외, ⑯ 분쟁해결, ⑰ 제도 및 최종 조항

*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(전자상거래)

2 상 품

◈ 양측은 한-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추가 자유화 달성

o 협상 대상 : 한-아세안 FTA의 민감·초민감품목*

* (한) 1,063개(4.7억불) - (베) 1,226개(21.2억불)

o 추가 자유화(12년 수입액 기준) : (한) **94.7%(+3%p)** ↔ (베) **92.4%(+6.1%p)**

☞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보호하면서도 주력·유망 수출 품목의 베트남 시장접근 개선

□ **(상품)** '12년도 수입액기준 **한국 94.7%(+3%p)-베트남 92.4%(+6.1%p) 자유화 수준 합의**

○ **(베트남측)** 베트남측은 이미 對韓 수입의 **86.3%**(수입액 기준)를 양허, 1.2%는 무관세, 1.9%는 3년, 2.9%는 5~10년, 나머지 0.1%는 15년 관세 철폐하여 **92.4%의 자유화율** 달성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○ **(우리측)** 우리측은 이미 對베 수입의 **91.7%**(수입액 기준)를 양허, 1.3%는 즉시, 1.0%를 3~5년, 나머지 0.8%는 7~15년(3개 품목 15년) 관세철폐하여 **94.7%의 품목 개방**

□ **(베측 시장개방)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**(면직물·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) **등은 3년, 변압기, 전동기, 믹서, 합성수지, 항공기부품 등은 5년, 철도차량부품, 선재, 원동기, 의약품 등은 7년, 자동차 부품, 화물자동차**(5톤~20톤), **승용차**(3000CC 이상), **화장품, 전기밥솥,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확보**

○ 일-베 EPA 발효('09년)로 日기업보다 베트남內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였으나,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(가전·자동차부품·화장품 등)으로 **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 확보**

□ **(우리측 시장개방)** 우리측은 **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**하여 △양허제외(한-아세안 FTA 양허 수준 유지), △저율관세할당 TRQ, △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**예외적 수단을 확보**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

○ 쌀(협정 대상 제외)·고추·양파·녹차·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에 비해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음

- 열대과일(구아바·망고 등)·마늘(건조/냉동)·생강(미분쇄·미파쇄(건조/기타), 돼지고기(삼겹살/기타(냉동)) 등은 10년 철폐, 천연꿀·팥·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

* **(그 외 주요 농수산물 양허 현황)** 호두(탈각(신선/건조)), 틸라피아(냉동), 연어(냉동), 전갱이(냉동), 기타 돔(냉동), 기타게(냉동), 기타 새우류(염장), 다시마(염장), 참치가공품(2개 세번)은 10년 철폐, 맥주 5년 철폐

○ 對베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(1.4억불)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(TRQ)를 제공

* 초기 물량 10,000톤, 이후 5년에 걸쳐 15,000톤까지 증량

3 서비스·투자

◈ 한-베트남 FTA를 통해 한-아세안 FTA 수준 이상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 조항을 마련하였으며, 후속협상 약속을 통해 서비스 추가 양허 및 투자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□ **(서비스)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**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,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**재협상 조항을 포함**

○ **(양허)**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

※ 도시계획·조경, 기타기계·장비임대, 건설 서비스 관련 베측 양허 개선

○ **(금융 부속서)**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(금융 서비스 위원회) 확보

○ **통신 부속서)** 우리 통신 사업자의 對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GATS 이상의 규범 확보

○ **(자연인의 이동 부속서)**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연인의 일시입국·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,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마련

□ **(투자)**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**한-아세안 FTA 투자협정**과 **한-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**에 합의

○ 투자협정상 의무에 대한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, 베측의 경험 부족을 감안하여 한-베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Built-in 조항을 도입하되,

○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베측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**최고 수준(the most advanced level)**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4 규범·협력 등

◈ **한-아세안 FTA 플러스** 수준의 **무역 촉진적 규범을 마련**하여,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,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

1 원산지 & 통관

○ **(원산지규정)** 한-아세안 FTA 대비 **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**

업종	품목별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
농수산물	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(WO)을 유지하되,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(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)의 비율 제고 (예: 가당연유, 유당 등)
섬유·의류	대부분 한-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,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(예: 커튼, 모포 등)
기계, 전기·전자	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-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(40%)으로 합의 (예: 세탁기, 냉장고 등)
자동차	완성차는 한-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(RVC45%)으로 하되,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(예: 기어박스, 차축 등)

○ **(역외가공지역) 개성공단**의 경우, 업계 요청을 기초로 **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**(HS 6단위 기준)

○ **(원산지절차/통관)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** 등을 통해 수출자·생산자의 편의 도모

- **(사전심사)** 상대국 수출자·생산자도 품목분류·관세평가·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

- **(원산지증명)**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(한-아세안 FTA 200불 이하)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

2 무역구제

○ **(양자세이프 가드)** 한베 FTA 양허로 인한 **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**을 확보하고 **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**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

○ **(반덤핑·상계관세)**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(15일전)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

-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,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

-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

○ **(무역구제위원회)**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실무 수준 위원회 설치

-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

3 무역기술장벽 (TBT)

○ 건자재, 화장품,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,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- 또한 기술규정 제·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(60일)을 명확히 하고,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 채널 마련

4 위생 및 검역 (SPS)

○ 당사국간 SPS 조치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기회 모색, SPS 챕터 이행 점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5 전자상거래

○ **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**에 합의하고, **전자인증·서명, 온라인 소비자 보호, 개인 정보 보호, 종이 없는 무역 등**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

*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

6 지식재산권

○ 저작권, 상표권, 특허권 등에서 **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**하고 **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**

- **(저작권)**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
  - · 저작자·실연자·음반제작자·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* 등 보장하고,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
    *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
- **(상표권)**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, 상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 합의
  - ·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하여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방지하고, 제품·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
- **(특허권)** 특허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명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방안 마련
- **(부정경쟁)** 타인의 상표, 명성,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 활동을 금지
- **(집행)**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,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·폐기 명문화 등 규정

*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규범을 형성

7 경쟁

○ **① 절차적 공정성·투명성·비차별·적시성**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, **② 국영기업·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** 의무, **③경쟁 당국간 협력** 의무 등 규정

○ 피심의인의 **방어권 보장, 최종 의결서 서면 송부,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** 마련

- 또한, 국영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간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

8 경제협력

○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*(산업, 농림수산업, 규정 및 절차, 기타)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

(산업 분야) 자동차, 철강 및 금속, 석유화학, 전자, 기계, 섬유·직물, 유통·물류 등
(농림 수산분야) 농축산업, 수산 및 양식, 산림관리,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
(규정 및 절차) 표준 및 기술규정, 관세행정절차, 원산지, 지적재산 등 분야 협력
(기타) 중소기업정책, 통계, 공정경쟁, 인프라, 투자 등

9 투명성

○ ① 협정 관련 조치(안)의 **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 보장**, ② 다른 쪽 당사국 요청시 해당 조치(안)에 대한 정보 제공, ③ 행정처분시 합리적인 통지 및 방어 기회 제공, ④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·행정적 구제 절차 설치 또는 유지

10 분쟁해결

○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**협의 절차, 중재패널 절차,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·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**

○ 분쟁해결의 **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**하고(긴급시 단축 시한 별도 적용), **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**

* ▲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, ▲패널설치일부터 120일(긴급시 60일)내 중간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참고4 한-베트남 FTA 상품양허 요약표

구분	한국				베트남			
	품목수(개)		2012 對베수입액(천불)		품목수(개)		2012 對한수입액(천불)	
전체	12,232		5,717,642		9,471		15,494,076	
한-아세안 FTA	11,169	91.3%	5,244,642	91.7%	8,245	87.1%	13,375,246	86.3%
즉시철폐 (유무관세 포함)	91	0.7%	72,330	1.3%	65	0.7%	179,932	1.2%
3년 철폐	216	1.8%	12,931	0.2%	16	0.2%	296,68	1.9
5년 철폐	134	1.1%	43,140	0.8%	47	0.5%		
7년 철폐	7	0.1%	2,998	0.1%	29	0.3%	16,747	0.1%
8년 철폐	-	-	-	-	6	0.1%	8,137	0.1%
10년 철폐	48	0.4%	40,195	0.7%	106	1.1%	405,553	2.6%
15년 철폐	3	0.02%	242	0.004%	3	0.03%	11,173	0.1%
소계	499	4.1%	171,836	3.0%	272	2.9%	937,301	6.1%
총합계	11,668	95.4%	5,416,478	94.7%	8,517	89.9%	14,312,547	92.4%

참고5 한-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

우리 양허		양허 단계	베트남 양허	
주요 품목	품목수		품목수	주요 품목
실장어(활어), 돔(치어), 농어(치어), 피조개 종패(활어/신선/냉장)	4	즉시 철폐 (무관세)	65	화물자동차, 펌프, 철근, 공기조절기, 기타정밀화학원료, 기타철강금속제품, 냉연강판, 복합비료, 봉강, 사료, 아연도강판, 열연강판, 의약품 , 원유 등
방모사, 소모사, 양모사, 방모직물, 순면사, 생지, 기타면직물, 폴리에스터사, 탄성사,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, 남성용 바지/아우터셔츠, 블라우스, 티셔츠, 스웨터, 양말, 코트 및 자켓, 신사복 상의, 여성용 수트/자켓/바지/스커트, 잠옷, 브래지어, 손수건, 스카프, 장갑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블록보드 등	87	즉시 철폐 (유관세)	-	-
건전지, 경유 등 석유제품, 기타고무제품, 기타농산가공품, 석유제품, 시멘트, 자전거, 자전거부품, 샴푸, 헤어린스, 필름, 쇠고기(식용설육(신선/냉장), 혀(냉동), 간장(냉동) 등), 닭고기(절단육(냉동)), 발효유, 치즈, 양송이버섯, 포도당, 과당, 맥아추출물, 국수, 곡류가공품, 스위트콘, 라이스페이퍼, 차/마태 조제품, 방어(신선/냉장), 넙치(냉동), 가자미(냉동), 피조개(신선/냉장), 갯장어(활어), 가자미(신선/냉장), 건조어란, 제재목 등	216	3년 철폐	16	기타영사기, 나일론직물, 부직포, 순면직물, 재생단섬유직물,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, 혼방면직물, 원동기 등
기[illegible]도에틸렌, [illegible]실렌초산비닐, 선박용압[illegible]점화[illegible]엔[illegible], [illegible]박용 부품, 고구마(냉동), 과일주스, 감사(소세/냉동), 잼, 두부, 향미용 조제품, 기타소스류, 주류, 당면, 미과, 인삼음료, 캐슈넛(미탈각/탈각), 가오리(냉동), 복어(냉동), [illegible]조개(냉동), 성게(냉동), 조제문어, 조제소라, 조제연체동물, 가리비과조개(기타), 제재목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합판, 기타목재류, 건축용목제품 등	134	5년 철폐	47	음극선관모니터, VCR, 계전기, 골판지원지, 기타생활용품(프레스파스너), 기타식탁용구, 기타유리제품, 기타직물, 순면직물, 편직물, 혼방면직물, 유아용조제식료품, 무선통신기기부품, 믹서, 변압기, 스위치, 신발부분품, 자동차부품, 전동기, 전선, 전신기기, 카스테레오, 컴포넌트, 합성수지, 항공기부품 등
기타전선, 통신용전선, 합판	7	7년 철폐	29	가열난방기(철강제 조리기구), 커피탕기, 비금속제 경첩, 보온밥통, 변압기, 볼트/너트, 선재, 원동기, 의약품, 자전거부품, 전동기, 철도차량부품, 항공기부품 등
-	-	8년 철폐	6	닭고기
베어링, 열대과일(구아바/망고/망고스틴/바나나/파인애플 등), 기타 과일주스, 난초/국화 등 화훼, 마늘(건조/냉동), 생강(미분쇄/미파쇄, 건조/기타), 생강(분쇄/파쇄, 신선/건조/기타), 호도(탈각/신선·건조), 돔기타(냉동), 전갱이(냉동), 틸라피아(냉동), 섬유판, 합판 등	48	10년 철폐	106	화장품(스킨로션/파우더 등), 가열난방기, 가청주파증폭기, 건축용목제품, 계전기, 스위치, 모니터, 기타고무제품, 전기밥솥, 냉장고, 라디오, 동조가공품, 복합비료, 세탁기, 승용차(3,000cc 초과), 화물자동차(5톤~20톤), 안전유리, 아연도강판, 에어컨, 원동기, 자동차부품, 전선, 전자레인지, 식기세척기, 축전지, 칼라TV, 크라프트지, 타이어, 펌프, 토스터기, 필름,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, 순면직물, 합성수지 등
고구마전분, 천연꿀, 팥(종자용외)	3	15년 철폐	3	자동차부품(기어박스)
	499	소계	272	
새우(냉동/가공)	7	TRQ	-	-
	506		272	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참고6 한-베트남 교역현황

□ 지난 '92년 한·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**양국간 교역규모는 60배 이상 성장**하여 '14년 베트남은 한국의 **아세안 제2위 교역 대상국**

* '14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(억불): ①싱가포르(351), ②베트남(303), ③인니(236)

○ '14년 한국의 **對베 수출액은 223.5억불**(전년대비 % 증가), **수입액은 79.9억불**(전년대비 % 증가)으로, **143.6억불 흑자** 기록

*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

< 한-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( )는 증감률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)

구 분	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
수 출	금액	5,760	7,805	7,149	9,652	13,465	15,946	21,088	22,352
	증가율	46.7	35.5	-8.4	35.0	39.5	18.4	32.2	6.0
수 입	금액	1,392	2,037	2,370	3,331	5,084	5,719	7,175	7,990
	증가율	50.5	46.4	16.3	40.5	52.6	12.5	25.5	11.4
무역수지		4,368	5,768	4,779	6,321	8,381	10,227	[illegible]	[illegible]
총 교역액		7,152	9,842	9,519	12,983	18,549	21,665	[illegible]	[illegible]

※ 14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수출 6위, 수입 15위 교역파트너

□ **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관련 부품·소재 위주, 수입 품목은** 자원 및 섬유·신발 등 **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** 위주

○ '14년 수출은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합성수지, 편직물, 기구부품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약 36.5% 차지

○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의류, 신발, 목재류, 무선통신기기, 기타섬유제품이며, 對베트남 수입의 약 44.5% 차지

< 한-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%, MTI 3단위)

순위	수출('14년)			수입('14년)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1	반도체	2,789	-3.9	의류	2,160	28.4
2	무선통신기기	2,271	45	신발	506	34.2
3	합성수지	1,188	4.6	목재류	350	51.2
4	편직물	978	3.9	무선통신기기	292	55.6
5	기구부품	937	1.0	기타섬유제품	252	15.9
	총계	22,352	6.0	**총계**	7,990	11.4

참고7 한-베트남 투자현황

□ 한국은 '14년 누적투자액 **372억불, 4,110건을 투자하여 투자액과 건수 모두** 對베트남 1위 투자국(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)

* 세계 對베트남 투자국 순위('14.12월 누계, 억불, 베트남 MPI): ① **한국(372)** ② 일본(369) ③ 싱가포르(327) / 건수기준에서도 한국은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(4,110건)

○ **베트남은** 미국, 중국, 홍콩에 이어 **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***임과 동시에 **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**으로 '14년까지 총 189.1**억불 투자**

* 한국의 투자순위('14년 누계(신고)기준, 수은) : ①(미국) 24,267건, 795억불, ②(중국) 50,209건, 655억불, ③(홍콩) 4,910건, 197억불 **④(베트남) 9,111건, 189억불**

○ 단순 섬유 가공 위주의 제조업 투자에서 전기, 전자부품 등으로 투자 분야 고도화, 신규 개방 분야인 유통·서비스업 투자도 증가

* 투자 [illegible]도 과거 개별, 소규모 투자에서 대형화, 연계형 동반진출 가속화

○ 對베 5대 투자분야는 **제조업**(88.5억불), **광업**(34.5불), **부동산업·임대업**(26.5억불), **건설업**(11.1억불), **금융·보험업**(7.1억불) 순('14년 누계(신고), 수은)

* 주요투자기업 : 삼성전자, LG전자, 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SK에너지, GS건설, 한국전력공사, 포스코, 삼성물산, 경남건설 등

□ 한편 **베트남의 對韓 투자**는 총 108건, 총 14.7백 만불(14년 누계(신고))로 **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**임

○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'11년에 투자가 급증한 이후 다시 감소

* **투자추이**(단위:백만불):('08)0.4→('09)1.0→('10)0.8→('11)5.0→('12)1.7→('13)2.1→('14)0.9

< 한·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백만불, ( )는 신고건수 / 자료출처: 수출입은행, 산업통상자원부)

구 분	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누계*
對베트남 투자	금액	2,780	1,913	964	2,147	1,511	914	1,455	1,248	**18,908**
	건수	839	826	643	763	723	739	1,014	2,111	**9,111**
對한국 투자	금액	0.5	0.4	1.0	0.8	5.0	1.7	2.1	0.9	**14.7**
	건수	7	9	13	15	15	14	7	4	**108**

* 對베트남 투자 : '68년-'14년 기준, 對韓 투자 : '97년-'14년 기준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

참고8 한-베트남 교역·투자 현황

□ 교 역

《단위 : 백만불, ( )는 증감률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》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수 출	5,760 (46.7)	7,805 (35.5)	7,149 (△8.4)	9,652 (35.0)	13,465 (39.5)	15,946 (18.4)	21,088 (32.2)	22,333 (5.9)
수 입	1,392 (50.5)	2,037 (46.4)	2,370 (16.3)	3,331 (40.5)	5,084 (52.6)	5,719 (12.5)	7,175 (25.5)	7,989 (11.3)
무역수지	4,368	5,768	4,779	6,321	8,381	10,227	13,912	14,344
총교역액	**7,152**	**9,842**	**9,519**	**12,983**	**18,549**	**21,665**	**28,263**	**30,322**

※ '14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제8위 교역파트너 (수출 6위, 수입 15위)

□ 투 자

《단위 : 백만불, ( )는 신고건수 / 자료출처: 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수출입은행》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계
베트남의 대한국 투자	0.5 (7)	0.4 (9)	1.0 (13)	0.8 (15)	5.0 (15)	1.7 (14)	2.1 (7)	0.9 ( )	14. (08)
한국의 대베트남 투자	2,780 (838)	1,904 (824)	964 (641)	2,158 (773)	1,509 (725)	939 (749)	1,459 (1,025)	,391 904	18,187 (8,746

※ '14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베트남은 대한국 제71위 투자주체,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

□ 한국의 대베트남 10대 교역품 현황(2014년 기준)

(단위 : 백만불, %, MTI 4단위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, 관세청)

순위	수출품목	금액	비중	수입품목	금액	비중
1	집적회로반도체	2,605	11.66	직물제의류	1,683	21.07
2	무선통신기기부품	2,186	9.79	편직제의류	469	5.87
3	합성수지	1,188	5.32	기타섬유제품	252	3.15
4	편직물	978	4.38	무선통신기기부품	251	3.14
5	인쇄회로	703	3.15	기타목재류	248	3.11
6	열연강판	577	2.58	스포츠화	235	2.94
7	기타플라스틱제품	417	1.87	기타신발	216	2.71
8	화물자동차	367	1.64	새우	206	2.58
9	직물제의류	322	1.44	원유	192	2.41
10	자동차부품	321	1.44	센서	178	2.23
	소 계	**9,664**	43.27	**소 계**	**3,930**	49.20
	전 체	**22,333**	100.00	**전 체**	**7,989**	100.00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이덕미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2 14:48:57